

4주차

외래사상, 불교를 받아들이다

박 미 선

학습목차

학습목표

학습내용

01. 불교의 탄생과 전파

- 도입
- 인도에서 불교의 탄생
- 인도에서 중국으로

02. 한국 고대사회의 불교 수용

- 고구려와 백제의 불교 수용
- 신라의 불교 수용
- 고구려에서 신라로 불교가 전해진 까닭

03. 신라 불교 수용을 둘러싼 갈등(1)

- 사금갑 사건
- 일관의 승려 견제
- 비처왕 때 불교 배척의 또다른 이유

04. 신라 불교 수용을 둘러싼 갈등(2)

- 이차돈 순교 설화
- 이차돈 순교의 숨은 의미
- 이차돈 추모

05. 한국 고대 왕들이 불교를 공인한 까닭

- 불교 수용 전 천손의식
- 새로운 사상의 필요성
- 왜 불교였나?

4차시

신라 불교 수용을 둘러싼 갈등(2)

학습목표

- 이차돈 순교 관련 설화들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말할 수 있다.
- 이차돈 순교에 담긴 숨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신라 불교 공인과 관련된 유적, 유물을 찾아볼 수 있다.

학습내용

- 이차돈 순교 설화
- 이차돈 순교의 숨은 의미
- 이차돈 추모

이차돈 순교 설화

이차돈 순교 설화

- 이차돈 : 내양자, 내사사인 → 법흥왕 측근 신하
- 법흥왕, 사찰 건립 → 신하 반대 → 공사 중단
- 이차돈, 묘책을 왕에게 제시

《삼국사기》 기록

“ 이차돈(異次頓) : “바라건대 소신(小臣)의 목을 베어
여러 사람들의 논의를 진정시키십시오.”

왕 : “죄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

그러나 이차돈의 뜻이 강경하였다. 왕이 신하들을 불러 모았다.

“ 신하들 : “지금 승려들을 보면, 박박 깎은 머리에 이상한 옷을 입고, 말하는 논리가 기이하고 괴상하여 떳떳한 도리[常道]가 아닙니다. 지금 만약에 [승려들을] 그대로 놓아둔다면, 후회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신들은 비록 중죄(重罪)를 받더라도 감히 명령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

“ 이차돈 : “지금 여러 신하들의 말은 옳지 않습니다.
무릇 특별한 사람[非常之人]이 있는 연후에야 특별한 일[非常之事]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듣건대 불교가 심오하다고 하니,
아마도 믿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왕 : “여러 사람들의 말이 견고하여 깨뜨릴 수 없다.
이차돈 너만 홀로 다른 말을 하니, 양쪽을 다 따를 수는 없다.”

마침내 관리에게 이차돈의 목을 베라고 명령하였다. ”

“ 이차돈이 죽음에 임하여 말하기를, “나는 불법(佛法)을 위하여 형장(刑場)에 나아가니, 부처님께서 만약神通력이 있으시다면 내가 죽은 뒤에 반드시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였다.

목을 베자, 피가 [목이] 잘린 곳에서 솟구쳤는데 [피의] 색깔이 우윳빛처럼 희었다. 여러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겨 다시는 불교에서 행하는 일[佛事]에 대해 험뜯지 않았다.”

《삼국사기》 (<계림잡전> 인용)

《삼국유사》 기록

9세기 一愼의 ‘축항분예불결사문’ 인용

“**염축이 말하길, “나라를 위하여 몸을 희생하는 것은 신하의 큰 절개이며, 임금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은 백성의 바른 의리입니다. 사령을 그릇되게 전했다고 하여 신을 형벌하여 머리를 벤다면 만민이 모두 복종하여 감히 지시를 어기지 못할 것입니다”**고 하였다.”

“ 어느 날 왕은 일부러 위엄을 갖추고 형벌에 쓸 무기를 벌여 놓고 신하들을 불러 묻길, 그대들은 내가 사찰을 지으려고 하는데 고의로 지체시키는가?라고 다그쳐 물었다. 신하들이 전전긍긍하니, 왕이 엄촉을 불러 꾸짖었으나 얼굴빛이 변하며 아무 대답이 없었다. 왕이 분노하여 그의 목을 베라고 명령하였다. ”

《해동고승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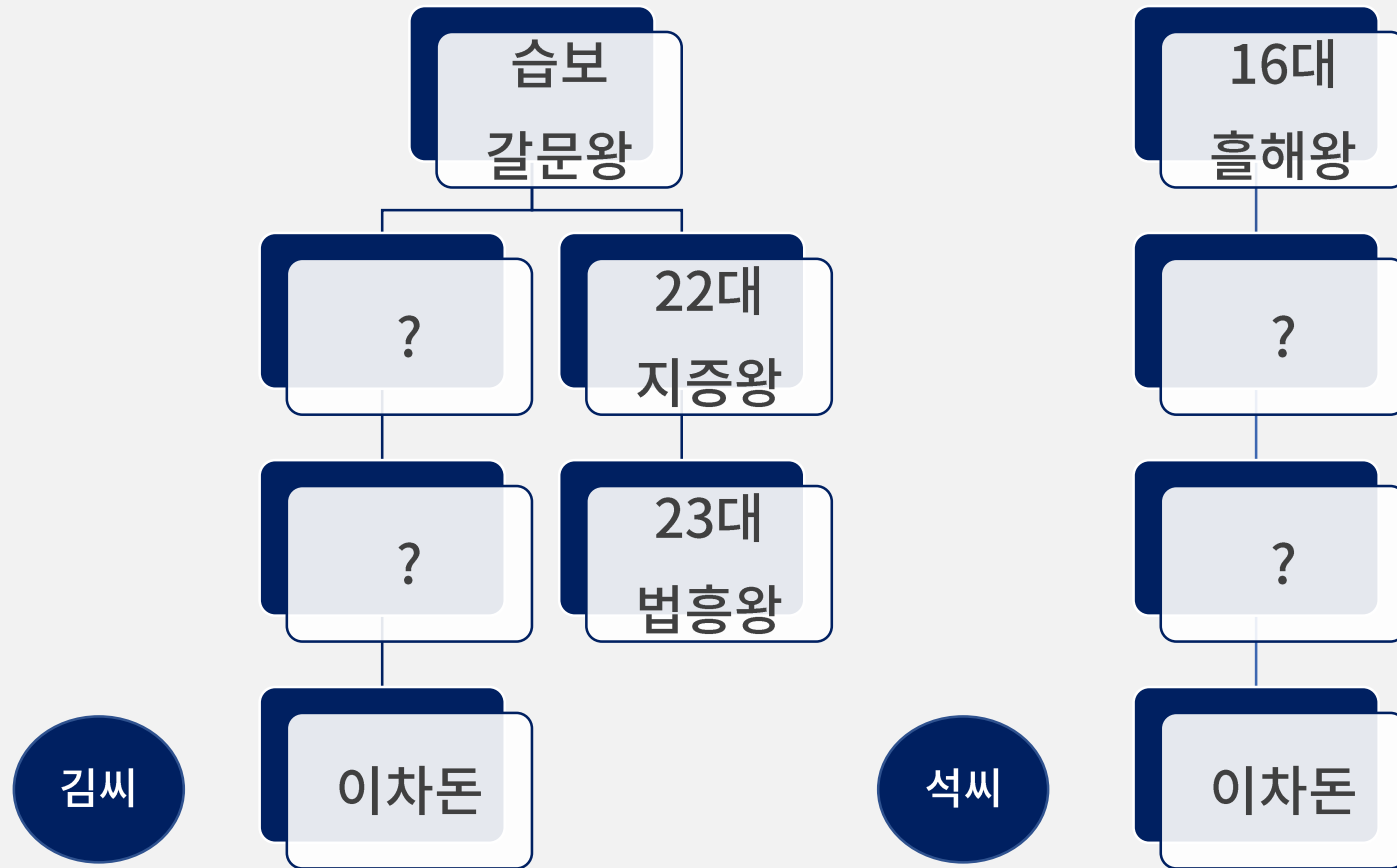
“ 염축이 왕의 큰 소원을 돕고자 하여 가만히 아뢰었다.
“폐하께서 만약 불교를 일으키고자 하신다면 청하옵건대 신이 거짓으로 왕명이라 하여 유사에게 전하되, ‘왕께서 불사(佛事)를 창건하려 하신다’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신하들은 반드시 간할 것이니, 이때 왕께서는 바로 칙령을 내려 ‘나는 그런 영을 내린 일이 없는데 누가 거짓으로 왕명이라 꾸며대었는가?’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반드시 신(臣)의 죄를 추궁할 것입니다. 그때에 만일 왕께서 그 신하들의 아뢰임이 옳다고 하신다면 그들은 복종할 것입니다.” ”

“ 드디어 “천경림에 절을 지으려 하노니 칙령을 받들라”고 염촉이 말하였다.
조정의 신하들은 과연 왕의 면전에서 그 일에 관해 쟁론하였다.
왕은 “내가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 고 하였다.
이에 염촉은 크게 외치기를 “신이 실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만약 이 법을 행하면 온 나라가 태평할 것입니다. 참으로 경제에 유익함이 있다면 비록 거짓으로 왕명을 꾸며냈다 하더라도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

염축의 의미

- 염(厭) : 싫어하다 → 이차, 이처 등으로 발음
- 축(𪛗) : 돈頓 도道 독獨 등의 의미 없는 어조사
- 염축=이차+돈

이차돈의 가계



삼국사기에 따른 가계도

삼국유사에 따른 가계도

이차돈 순교의 숨은 의미

이차돈 순교의 의미

- (1) 삼국사기
 - 불교 수용을 놓고 신하와 이차돈 대립
 - 이차돈 혼자 다른 의견 → 참형

■ (2) 삼국유사

- 왕이 사찰 공사 지체한 자가 누구인지 묻자 이차돈이 대답하지 못함 → 참형

■ (3) 해동고승전

- 이차돈이 거짓 왕명으로 사찰 공사를 재개함 → 참형
- 참형 당할 만한 죄목은 ‘거짓 왕명’

이차돈 죽음이 의미한 것

- 신하들 앞에서 이차돈 처형
- 왕에게 도전하는 자, 왕을 위협하는 자 → 죽음
- ‘왕명’은 어길 수 없는 것

→ 사찰 공사 왕명이 내려질 경우,

이제 신하들은 반대할 수 없었을 것

이차돈 순교 이후

- 527년 이차돈 순교 후 사찰 짓기 위한 터 다지기
- 535년 본격적인 사찰 공사
- 544년 사찰 완공 = 신라 최초의 사찰, 흥륜사



경주 흥륜사지
(1980년대 세운 흥륜사)

‘흥륜사지’를 둘러싼 논쟁

- 1980년대에 세운 흥륜사
 - 일찍이 흥륜사 터로 전해짐
 - ‘영묘사’라고 새겨진 기와 조각이 발견됨
- 2008년, 경주공업고등학교 운동장
 - ‘흥(興)’, ‘사(寺)’가 새겨진 기와가 출토됨

이차돈 추모

이차돈 추모

- 이차돈 죽음(527) → 신라의 불교 공인=527년 → 이차돈=순교자
- ‘경주 이차돈 순교비’ (818)

이차돈 순교비

- 경주 백률사에서 발견
이차돈의 목이 떨어져 자추사라는 절을 세웠던 곳
- 6면 비석, 1면 : 이차돈 순교 장면
- 흰 피 : 불교에서 순교자 상징
→ 이차돈=순교자로 인식



이차돈 순교비

SOURCES

[출처01] 문화재청

<https://www.heritage.go.kr/heri/cul/imgHeritage.do?ccimId=6281806&ccbaKdcd=13&ccbaAsno=00150000&ccbaCtcd=37>

[출처02] 국립경주박물관

https://gyeongju.museum.go.kr/kor/html/sub04/0401.html?mode=V&id=PS0100100200100001600000&cate_code=&cate_gubun=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K-MOC

기획·조정

이진형·정다영

교안

이유정·윤승희

영상

김록현